



22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총회의실에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열고 제13대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추대한 가운데, 김희수 전 반기의 의장 후보 선출지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 민주 도의회 본격 원 구성 돌입

### 제13대 전반기 의장 후보에 김희수 의원 선출

### 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도 확정... 내달 마무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13대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후보를 확정하며 본격적인 원 구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총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13대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추대했다.

1차 투표 결과 김희수 의원이 17표, 김대중 의원이 16표, 이명연 의원이 9표를 얻어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투표가 실시됐다. 결선에서는 김희수 의원이 22표를 획득해 20표를 얻은 김대중 의원을 2표 차로 제치고 민주당 의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김희수 의원은 현재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전주시 제8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이다. 김 제2부의장은 도의장 후보 공약으로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협치 의회 구현 △의원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 체계 완성 △청렴과 원칙에 기반한 '신뢰받는 의회' 확립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제시했다. 제부의장 후보에는 이병도 의원, 제2부의장 후보에는 박정규 의원이 각각 단독 후보로 추대됐다. 상임위원장 후보도 대부분 단독 추

## 민주 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후보자 명단

- ▲의장 - 김희수
- ▲부의장 - (제1)이병도, (제2)박정규
- ▲의회운영위원장 - 김태창
- ▲기획행정위원장 - 염영선
- ▲농업복지환경위원장 - 권오안
- ▲경제산업건설위원장 - 김동구
- ▲문화안전소방위원장 - 김성수
- ▲교육위원장 - 전용태

대로 정리됐다. 의회운영위원장 후보에는 김태창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후보에는 염영선 의원, 농업복지환경위원장 후보에는 권오안 의원, 경제산업건설위원장 후보에는 김동구 의원, 문화안전소방위원장 후보에는 김성수 의원이 각각 추대됐다. 교육위원장 선출을 위한 결선에서는 전용태 의원과 남관우 의원이 맞붙었으며, 전용태 의원이 승리해 교육위원장 후보로 확정됐다.

이날 선출 및 추대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식 선거 절차를 거쳐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절대다수(44석 중 42석)를 차지하고 있어 이날 확정된 당내 후보들이 사실상 제13대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 '당정청 원팀' 정청래 - '대통령 국정 뒷받침' 김민석

# 민주 차기 당권주자 '신경전'

### 정 대표, 연임 도전 공식화 김 총리, 한 후보자 청문회 마무리 되면 여의도 복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 주 대표자에서 물러나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되면 여의도로 복귀할 전망이다.

정 대표와 김 총리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해 미묘한 신경전을 보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우리 당의 힘으로 뽑혔던 강원도 강릉과 동해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보여 준 눈부신 선전은 큰 감동을 줬다"며 6·3 지방선거에 대한 자평을 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서 보내주신 애서와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가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거에 대해 "좋은 결과를 냈지만 어렵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결과가 있어서 우리 모두 더 성찰하고 더 혁신하고 더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또 한 번의 과제

라고 생각한다. 이제 4년 남았는데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정 대표는 2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외교가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당정 원팀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당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면서 전체적인 당정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당으로 돌아가면 그런 방향에서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그것이 국정 지지율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국정 동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정기국회원대회(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번 연임 오는 24일 당 대표를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리는 2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이번 중국 방문은 임기 내 마지막 해외 순방이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인준 절차 등이 마무리 되면 국회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 '전주, 시민과 함께 AI 특별도시로'

### 전주시장직 인수위, 하정우 전 靑 AI수석 초청 특강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전주형 미래 도시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특별강연을 마련했다.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위원장 안국찬 전 전북대학교 부총장)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대회의실에서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을 초청해 '시민을 위한 AI 대전환 전주 모두를 위한 AI 특별도시'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 AI 특별도시' 조성 비전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AI 기반 도시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 전 수석은 강연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AI 기술 동향과 세계 주요 지방정부의 AI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AI가 산업과 행정, 지역경제에 가져올 변화와 가능성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특강이 시민들의 AI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민선 9기 전주시가 추진할 AI 정책의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지훈 당선인은 시민의 일상과 행정, 산업, 복지 전반에 AI 기술이 융합되는 미래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도시 전체를 AI 기술의 실증 무대로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 혁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중심 국가 성장전략과 맞닿은 전주를 지방 AI 혁신의 선도도시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 경제·산업분과는 개인형 AI 비서 서비스 도입, AI 시민대학 운영, 데이터 주권 보장 체계 구축, AI 공공행정 혁신, AI 테스트베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검토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국찬 위원장은 "이번 특강은 AI 특별도시 전주의 미래상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며 "AI가 시민의 삶과 산업, 행정 전반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민주 김희수 제13대 전반기 도의장 후보 선출자

# '상생·균형의 정치' 핵심가치... 정책 중심 의회 구현 약속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의원총회에서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도의장에 김희수 도의원(전주 제6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 교육정책·지방자치 발전 의회 혁신 분야 활동 활발 지역사회로부터 신뢰 받아

3선 의원인 김 도의장 선출자는 제13대 의회 개원과 함께 7월 1일 열리는 임시회 의원총회에서 도의장으로 선출되면 향후 2년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이끌게 된다.

1980년 고창 공음면 출생인 김 도의장 선출자는 전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현재 전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대한노인회 전주지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배드민턴협회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인권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리 3670지구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제11대 전라북도의회에 처음 입성한 이후 교육위원회의 위원장,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제2부의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의정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교육정책과 지방자치 발전, 의회 혁신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동료 의원들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아왔다.

그는 도의장 선거 과정에서 '상생과 균형의 정치'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정책 중심의 의회' 구현을 약속했다. 또한 도청과 교육청, 의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원들의 전문적인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확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의장은 "의장은 군타는 자리"가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봉사직이라며 "특정 지역이나 계파를 넘어 오직 전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일하는 의장이 되

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의원 정수가 44명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 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정책의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지역 정치에서는 김 의장의 선출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민선 9기 이원택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는 제13대 의회에서 김희수 도의장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새만금공사, '2026 대한민국 랜드페이' 참여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오는 24일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되는 2026 대한민국 랜드페이에 참가해 하반기 후속 분양계획을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투자기회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6 대한민국 랜드페이'는 대한경제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대한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이 후원하는 국내 유일 용지 박람회로, 공공기관 및 민간개발기업과 토지 수요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토지 비즈니스 행사이다. 공사는 이번 박람회에서 지난해(2025년) 하반기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

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첫 분양 성과를 재조명하는 한편, 올 하반기 예정된 후속 분양 계획을 상세히 소개해 새만금 수변도시가 지닌 견고한 미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한다.

공사는 2026년 하반기 중 수변도시 1공구에서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36개 필지 약 5.675평(1만8,763㎡)과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10개 필지 약 1,434평(4,742㎡)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은비드를 통해 분양할 계획이다.

공사는 현장 설명회를 통해 새만금 사업 현황 및 비전 스마트 수변도시 상세 개발계획, 후속 분양계획 등을 소개한다. /이만호 기자

## 고창군의회, 제10대 당선인 상견례 개최

고창군의회는 22일 소회의실에서 제10대 고창군의회 의원 당선인 간 상견례를 통해, 제10대 고창군의회 당선인들끼리 첫 공식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고창군의회 의원 당선인들끼리 첫 만남을 마련하고 당선인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0대 고창군의회 당선인은 가선거구(고창·고수·신탄) 이경신 박성만, 진남포 나선거구(신탄·흥덕·상내·부안) 박종열, 임종훈, 다선거구(공음·성송·대산) 임정호, 강상원 라선거구(아산·무장·해리·상하) 조규철, 김삼용,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최선례 당선인 등 10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명(비례대표 포함),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상견례는 당선자 10명 모두가 참석해, 회기 운영계획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사항 안내 및 의회시설을 견학하였고, 오는 7월 예정된 제10대 의회 첫 임시회와 개원식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의회 마지막 회기 돌입... 24일까지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22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택시는 생활밀착형 공공교통 수단임을 강조하며, LPG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대한 유가인정 지원대책 마련과 비우체택시·농촌복지택시의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김석환 의원은 담곡마을의 발

효문회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경관농업 단지 조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통해 발효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23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